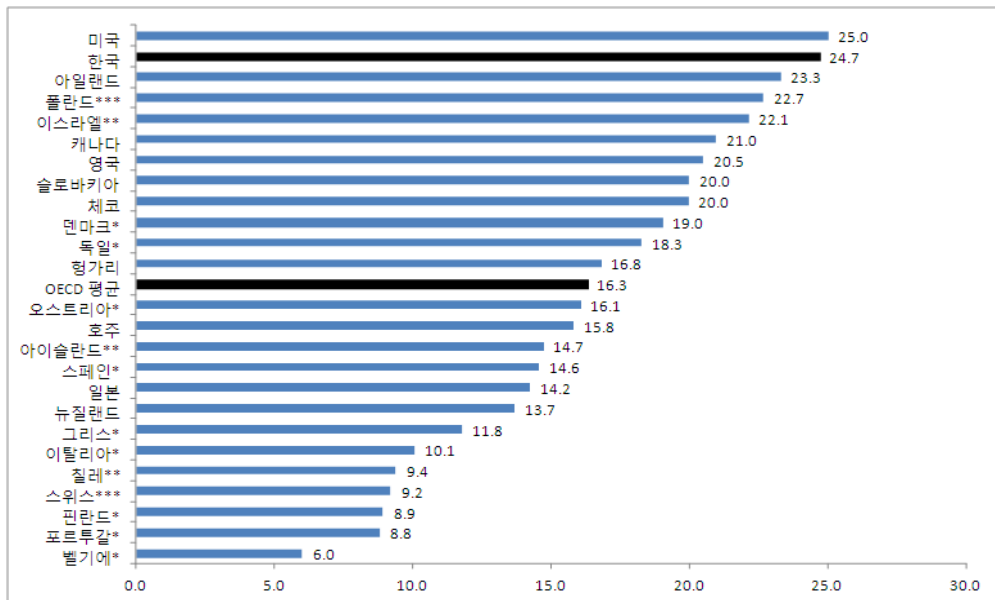


저임금근로자 국제비교

- 2013년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4.7%로 OECD 국가 중 미국(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OECD는 중위임금의 2/3값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함.
 - 아일랜드, 폴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은 20% 초반대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일본은 14.2%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칠레, 스위스, 핀란드, 포르투갈, 벨기에에는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
- OECD 주요 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 우리나라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 45.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림 1] OECD 주요 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13)

(단위 : %)



주 : ***, **, * 표시 국가는 각각 2010년, 2011년, 2012년 기준임.
자료 : OECD Stat Extracts. <http://stats.oecd.org> (2015. 4. 28 기준).

2013년 38.9%까지 감소하였으나, 아직 미국(29.2%), 아일랜드(28.9%), 영국(27.4%), 일본(26.3%) 등의 상위그룹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아일랜드, 덴마크, 호주, 이탈리아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소폭의 증가를 보임.
- 우리나라 남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 15.1%에서 2013년 16.6%로 변화의 크기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2000년 19.3%에서 2013년 21.7%로, 아일랜드가 13.2%에서 19.1%로 크게 증가한 것과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소폭의 증가를 한 국가들의 추세와 대비됨. **KL**

〈표 1〉 OECD 주요 국가들의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

	남 성				여 성			
	2000	2005	2010	2013	2000	2005	2010	2013
한국	15.1	17.9	16.1	16.6	45.8	41.9	40.4	38.9
미국	19.3	19.7	21.6	21.7	31.7	29.4	29.9	29.2
아일랜드	13.2	16.9	17.6	19.1	25.9	25.3	24.4	28.9
캐나다	20.8	21.8	21.9	22.0	22.7	21.4	21.3	21.2
영국	14.0	15.2	15.9	16.1	31.6	29.5	28.1	27.4
체코	-	14.6	15.4	15.3	-	26.9	26.1	25.9
덴마크	7.1	10.6	12.3	14.3*	18.1	20.6	23.5	26.2*
독일	10.9	12.0	14.5	14.7*	26.7	29.0	26.4	24.8*
오스트리아	-	7.8	10.1	10.4*	-	28.7	27.9	26.7*
호주	12.1	13.5	14.0	13.1	18.9	20.1	19.7	20.5
스페인	-	12.1	12.4	11.1*	-	22.7	20.2	19.4*
일본	6.7	8.2	8.1	8.4	33.1	33.7	28.2	26.3
뉴질랜드	9.7	10.2	11.8	12.9	14.7	15.5	14.2	14.8
그리스	-	16.3	11.0	11.1*	-	25.2	16.4	12.7*
이탈리아	8.2	-	7.3	7.1*	11.7	-	12.9	14.6*
핀란드	-	4.5	5.5	5.7*	-	9.7	10.9	12.3*
포르투갈	-	10.6	6.5	5.7*	-	22.3	11.6	12.1*
벨기에	-	4.8	3.2	4.7*	-	12.5	7.7	11.2*

주 : * 표시는 2012년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율임.
 자료 : OECD Stat Extracts, <http://stats.oecd.org> (2015. 4. 28 기준).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